

1. 말씀 앞에 서보니, ‘나를 기억해 다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1장: 1-11절

1. 하가라의 아득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2.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은즉
3.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9.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은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0.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경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순 관원이 되었느니라

Intro.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로 새로운 시리즈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엄마는 미술가가 좋아요 아니면 음악가가 좋아요?”

그러자 엄마는 “둘 다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나가 웃으면서 자랑스럽게 엄마에게 성적표를 보여 주었습니다.

성적표에는 “미술 - 가, 음악 - 가”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 무엇을 듣고, 어떻게 듣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의 인생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우리의 일상으로 인해,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022년을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내 걸었습니다.

지난 몇 년 코로나로 인해 많이 피해를 입은 사회와 신앙의 침체를 보면서 가장 근본적인 곳에서부터 새롭게 rebuilding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롭게 재건되어야 할 우리의 영적 육적 모범을 제시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동일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이야기가 순서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셋의 특징을 들라면 모두가 페르시아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고, 민족 의식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라는 학자였는데, 포로기를 지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잊혀진 말씀을 회복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느헤미야는 말씀회복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므로 신앙회복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간단하게나마 역사적인 고찰을 하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 C. 722년 경에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B. C. 587년 이 되어서는 남 유다가 베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연과 되어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며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성벽을 헐고 성문을 불태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베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바사의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향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성벽이 없이 살아가야 했던 유대인들이 겪어야 했던 일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은 그가 고향으로부터 온 소식을 들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3.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 기승르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혹시 ‘수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없나요? 바로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수산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이들은 그곳에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 역시 고위직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는 바사의 아하수제로 왕의 왕비였습니다. 당연히 에스더와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를 섬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닥사스다는 이미 에스라에게 많은 돈을 주어 그를 고향 예루살렘으로 보낸 선한 왕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원하는데 관심이 있었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듯합니다. 그렇게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느헤미야는 왕이 먹는 술을 관장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왕이 지극히 신임하는 신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때, 느헤미야는 고향으로부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2절 말씀.

2.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은즉

“내가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나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느헤미야는 굳이 이런 말을 듣지 않고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조국 이스라엘과 그 형제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왕 제 이십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2.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묻은즉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의 수도인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자신은 페르시아에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곳에 남아 있는 자신의 형제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 물었습니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묻은 즉’

이 말씀을 준비하는 새벽에 신문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찾아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때, 하루에 9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코로나 감별소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나라에서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폭염을 피해 업무를 정지하고 쉬라고 하지만,

그 열돔 현상으로 온 나라가 뜨겁게 달궀진 도로에서 기다리는 시민들을 그냥 둘 수 없어 일하는 사람들의 기사를 보게 된 것이죠.

20대의 한 여성은 기사가 나가는 것은 좋지만, 뒷모습을 찍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땀띠로 별갈게 변한 자신의 모습을 어머니가 보면 마음이 아플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더위에서 장갑을 벗으면 라텍스와 함께 땀으로 뒤범벅된 손의 피부가 같이 벗겨지기도 합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향을 다녀온 형제 ‘하나니’에게 자기 고향이 어떠한지 사정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조국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가 처한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이미 자신은 충분히 걱정없이 먹고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말입니다. 모든 일들은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무엇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4절 말씀.

4.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씀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분명히 슬픈 소식을 들었으니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놓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은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실 때는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부흥과 회복”을 이야기 할 때마다 언급되는 성경이기도 하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위대한 부흥의 역사와 느헤미야의 사역이 일어났던 때를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던 때, 형제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형편을 알려줬습니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때부터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백성과 훼파된 성전을 바라보며 슬피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옵소서”

자신의 백성이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 때문인지를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6절 하반 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죄를 지었기에 벌을 받아 마땅한 민족입니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열국 중에 민족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에게 보이는 것은 죄로 인한 황량함과 잡초 같은 민족,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하는 자신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곳이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가 있는 수산궁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서 비극적인 소식을 접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신 부흥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9절의 말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서는 저주와 형벌에 대한 무서움만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돌아오면, 언제든지 회복하면 축복해 주시기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 현재 범죄 한 우리 민족의 모습과 비참한 징계 당함을 보시지 마시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미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비전 부흥의 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억해 달라는 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시고 잊어버리셨기 때문일까요? 여기에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과 민족이 하나님께 기억 된 바 되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신앙의 다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지금은 비록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일찍이 구속하시고 택하여 주신 백성이기에,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시작하며 우리가 바로 이 회복과 부흥의 비전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훼손된 성벽과 압제 속에서 슬피 우는 백성을 바라보며, 부흥의 비전을 보았던 느헤미야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여 주옵소서”기도한 그의 기도에 주목하십시오.

그의 기도는 그의 민족이 달라질 것에 대한 헌신과 다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버려진 들판, 잡초가 무성한 땅을 지날 때마다 유심히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땅을 바라보며 버려진 땅이 아니라 비옥한 농토로 바꾸는 상상을 합니다.

“참 굉장한 땅이야!” 그 사람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을 그 땅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 땅 주인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당신이 가지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며 무성한 잡초를 볼 때, 당신은 이 땅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잡초를 다 뽑아내고 이것을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 거라 확신 하오”

여러분들은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를 아시나요?

일제의 압제아래 연해주에 이주해 정착해 살던 사람들이 스탈린이 정권을 잡으면서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되었던 역사를 말입니다.

당시 강대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를 잃은 불쌍한 우리 민족이 연해주에서 땅을 가꾸며 살고 있었는데,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들이 일본에게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937년 9월 9일부터 10월 말까지 17만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강제로 화물 열차에 짐짝처럼 실려 갑니다. 이중 1만 1천 명 정도가 열차에서 질병과 기아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척박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그곳에 내려진 사람들이 거할 곳도, 먹을 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굶어 죽으면서까지 종자 씨앗을 먹지 않고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기에,

비록 동토의 땅이지만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바뀌어 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비옥한 곡식의 풍성함을 보았던 사람들의 헌신이 오늘날 그 땅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바로 그 척박한 땅에서의 부흥을, 잡초 가운데서 비옥한 땅의 풍성함을 보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서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정한 관계, 그리고 살아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척박한 우리 인생에 풍성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이들의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때에. . .

아주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그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이방 땅에서 민족을 생각하며 부흥을 꿈꾸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힘이 있으며, 어떻게 부흥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때에. . .” 느헤미야가 민족을 생각하며 슬퍼하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때에. . .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11.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방 땅에서 그 왕의 도움을 받고 부흥의 역사를 시작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정신 의학자 존 화이트는 ‘탁월한 지도력’이라는 책에서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can’과 ‘will’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을 개인적인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하며, 어쩌면 자신의 기도를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민족의 아픔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형통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때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이 ‘이 일과 이 상황’을 위해서 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있게 하심이 우리 민족의 형통함을 위해 가져다 놓으신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때에 내가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를 잘못 오해하면,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높이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I was cupbearer to the king.”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깨닫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이미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2장에 가서 보면, 그가 어떻게 자신의 비전을 이루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느 날 그가 왕의 앞에 나아갔을 때, 얼굴에 근심된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를 총애한 왕이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 하냐고, 그 때 느헤미야는 솔직하게 자신의 고향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을 고합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되어, 고위직에 있는 그가 아직도 자신의 땅을 못 잊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고백입니까? 그 때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하게 구합니다. 자신을 그곳에 보내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황당한 요구였는데, 느헤미야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8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 왕이 허락하고

이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벽이 앞에 있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2장 8절 말씀을 영어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 And because the gracious hand of my God was upon me, the king granted my requests.

그렇습니다.

오늘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날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 일을 기대하며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계획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그의 생각)

(verse1)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 보신단다

(chorus)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verse2)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 하신단다